

서울 소비경기 활력저하 지속 제조·서비스업, 경기악화 체감

서울연 '서울경제동향 1월호'
소비경기지수 -1.1%... 하락폭 ↑
제조업·서비스업 BSI, 전월비 줄어

서울의 소비 경기 활력 저하가 지속되고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제조 및 서비스 기업의 체감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연구원의 '서울경제동향 1월호'에 따르면, 서울의 소비 경기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계속됐다.

작년 11월 서울의 소비경기지수는 -1.1%로 전월(-0.5%)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분야별로 보면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지난해 9월 -0.8%, 10월, -0.1%, 11월 -1.3%로 감소세가 지속됐다. 같은 기간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7%, -1.3%, -0.8%로 계속 마이너스였다.

이 기간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3.4%, -2.7%, -0.5%로 조사됐다. 작년 9~11월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1.6%, -1.8%, 0.1%, 대형마트 판

매액지수는 -7.8%, -5.4%, -2.4%였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며 서울의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이하 동행지수)는 100.3으로 전월(100.5) 대비 하락했다.

동행지수는 현재 경기가 어느 국면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로,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은 편이란 의미고, 100 미만이면 나쁘다는 뜻이다. 서울의 동행지수는 작년 9월 100.2에서 10월 100.5로 소폭 상승했다가 11월 100.3으로 다시 줄었다.

제조업 생산(-6.1%)은 전월(-7.5%)에 이어 감소세를 유지했으며, 서비스업 생산(24년 3분기, 1.9%)은 전기(3.8%)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작년 11월 수출(2.2%)은 전월(8.3%) 대비 증가폭이 위축됐고, 수입(-7.9%)은 전월(-4.3%)과 비교해 감소폭이 확대됐다.

내수 침체로 기업의 경기 체감도 좋지 않았다. 올 1월 전국의 제조업과 서

비스업 업황 BSI(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모두 전월보다 떨어졌다. 제조업 업황 BSI 전망은 지난해 12월 66에서 올해 1월 61로 5포인트 낮아졌다. 동기간 서비스업 업황 BSI 전망은 73에서 65로 8포인트 급락했다.

서울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BSI 전망 역시 밝지 않았다. 소상공인 경기 BSI 전망은 작년 11월 79.1에서 12월 78.1, 올 1월 77.3으로 떨어졌고, 이 기간 전통시장 경기 BSI 전망은 82.2, 71.3, 69.2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체감 경기는 악화일로인데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지속 상승하며 시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작년 10~12월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 1.6%, 1.8%로, 두 달 연속 0.2%포인트씩 뛰며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동기간 서울의 상품물가 상승률은 0.6%, 1.1%, 1.6%로 연달아 0.5%포인트씩 치솟았고,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1.8%, 1.9%, 1.9%로 강보합세를 이어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올해 서울 중학교에 6만7000여명 입학

지난해보다 1955명 늘어

올해 서울 관내 중학교 신입생은 6만 7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태어난 흑룡파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5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지난해보다 1955명(2.96%) 많은 6만 7985명의 신입생이 관내 382개 중학교에 입학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 수는 2024학년도 대비 1955명 증가했다. 이는 2012년 생 흑룡파 출생아가 많았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남학생이 3만3906명, 여학생은 3만 3079명이다. 특수학교와 특성화중학교, 각종학교 입학예정자 905명은 제외했다.

2025학년도 중학교 신입생은 총 2573학급에 학급 당 평균 26.4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 교원정원 감축 등의 영향으로 학급 수는 지난해보다 49학급이 줄었고, 학급당 학생수는 지난해 25.2명에서 1.2명 증가했다.

11개 교육지원청별 학급당 학생수는 강남·서초가 30.5명으로 가장 높고, 강동·송파와 강서·양천이 각각 27.3명으로 뒤를 이었다. 중부교육지원청이

21.4명으로 가장 낮다.

중학교 신입생 배정은 거주지 기준 학교군별 전산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통학 여건 및 학교 간 균형 배치 등을 고려해 실시한다.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의 학생인 경우 형제·자매가 재학 중인 학교로 배정 신청을 할 수 있어 올해 총 2440명의 학생들이 동일 학교로 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정 결과를 3일 원서 접수 시기제한 보호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문자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배정통지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출산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교부할 예정이다. 서울시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해당 초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및 타 시·도 졸업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받을 수 있다.

배정통지서를 교부 받으면 3일부터 4일까지 배정 받은 중학교에 입학 등록을 해야 한다.

타 시·도에서 중학교 배정 후 전 가족이 서울시로 전입을 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거주지 이전으로 학교군이 변경된 학생은 재배정을 신청해서 다시 학교를 배정 받을 수 있다. 재배정 신청 기간은 5일부터 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이현진 기자

올해 수능 N수생, 최대 20만2762명 전망

2001년 이후 25년 새 '최대 규모'의 대 모집 조정 변수, 규모에 영향 고3 학생 수 증가로 비율은 낮아져

2026학년도 11월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할 N수생이 20만명대에 이를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2001년 이후 25년 새 최대 규모다. 특히 2026학년도 대 모집 조정 변수가 N수생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일 종로학원이 수능 접수자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 N수생은 19만~20만명으로 예상된다. 최근 연도 고3 졸업생 대비 N수생 비율, 연도별 재수생 추세, 고3 학생 수 등을 토대로 최대 20만2762명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종로학원 측은 예측했다. 2025학년도 N수생은 18만1893명으로, 이보다 11.5% 증가한 규모다.

N수생이 20만명대를 돌파하면, 26만9059명이던 지난 2001학년도 이후

최대 규모다. 2002학년도부터 20만명을 넘어선 해는 없었다. N수생이 20만명이 넘어간 적은 1994학년도부터 2001학년도까지 모두 8번 있었고, 1996학년도가 31만3828명으로 해당 기간 최대 규모 N수생이 수능을 치렀다.

올해 졸업을 앞둔 고3 졸업생은 40만 6079명으로, 이 중 34만777명이 2025학년도 수능에 응시했다. 이는 전년 동일 기준(32만6646명)보다 1만4131명(4.3%) 증가한 수준이다.

2025학년도 정시모집을 실시한 4년제 대학 202곳의 모집인원과 지원자 수를 대비해 보면, 어느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수험생은 1만1763명으로 전년보다 3.0%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 중 서울권 대학엔 5542명(3.5%) 증가하고, 경인권 2031명(2.3%), 지방권 4190명(2.8%)이 각각 늘 것이라고 종로학원 측은 예측했다.

특히, 2025학년도 전국 98개의 대·치대·한의대·약대 등 '메디컬분야'에서 정시 탈락 인원이 지난해 보다 3112명

(18.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의대에 작년보다 2028명(29.4%) 많은 학생이 정시에서 합격증을 받지 못하고, 전년보다 ▲치대 234명(20.3%) ▲한의대 254명(11.6%) ▲약대 596명(9.6%) 더 정시 탈락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단, 올해 고3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수능 전체에서 N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34.8%)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다. 2026학년도 고교 3학년 학생 수는 45만3812명으로, 지난해(40만6079명)보다 4만7733명(11.8%) 증가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현재 종합적인 상황으로 볼 때 2026학년도 대입 수능 N수생 규모는 수능 응시자 34.5% 정도로, 19~20만명 초반대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통계적 수치 흐름상으로는 20만명 돌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6학년도 대 모집 조정 변수가 N수생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hjj@

(2025학년도 서울 관내 중학교 배정 대상자 현황*)

구분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남	여	계		
2025	34,906	33,079	67,985	2,573	26.4
2024	34,084	31,946	66,030	2,622	25.2
증감(증가율)	증 822(2.41%)	증 1,133(3.55%)	증 1,955(2.96%)	감 49(-1.87%)	증 1.2(4.76%)

* 특수학교, 특성화중학교 및 각종학교 입학예정자 905명 제외

/서울시교육청

“카드 포인트, 서울페이플러스로 바꿔요”

이달 말 '동행마일리지' 제도 시행

서울시는 쇼핑, 주유 등을 통해 쌓은 백화점·주유소·카드 포인트와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서울페이플러스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동행마일리지' 제도를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동행마일리지에는 ▲현대백화점 ▲S-OIL ▲신한은행 ▲신한카드 총 4개사가 참여한다. 현재 이들 기업이 운영하는 마일리지 규모는 1조7000억원이다. 이 중 10%만 동행마일리지로 전환해도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약 1700억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효과

가 발생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소비자는 그간 기업별 소액으로 분산돼 사용하기 어려웠던 민간 마일리지를 서울페이플러스 앱 내 동행마일리지로 통합해 약 27만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소상공인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가 0원인 동행마일리지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 실질적인 매출 증가 효과를 누리게 된다.

동행마일리지는 올 2월 말부터 신한은행 '블루라라 포인트', 신한카드 '마이신한 포인트'를 시작으로 현대백화점 'H.Point', S-OIL 'S-OIL 포인트'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영덕 인하대 교수 연구팀, IoT 위한 인공지능 기술 제안

저비용 센서서 신뢰 데이터 측정 인공지능 모델 TESLA 제안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서영덕 전기컴퓨터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사물 인터넷(IoT)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서 중요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서영덕 교수와 안석호·김형진 박사

과정 학생, 파리-사클레대학교의 신성복 박사후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사물 인터넷 기기에 사용되는 저비용 센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인 TESLA(Transformer for effective sensor calibration utilizing logarithmic-binned attention)를 제안했다.

이 같은 연구성과는 이달 열리는 인공

지능 분야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 대회인 'AAAI(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25'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연구책임자인 서영덕 전기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저비용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도 고성능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일용직 건설 근로자, '안심수당' 받는다

서울시 "극한기후로 작업중지 시 지원"

서울시는 이달부터 일용직 건설 근로자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안심수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수당은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극한 기후로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생

활임금 범위 내 소득을 보전(일 최대 4시간)하는 제도다.

안심수당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 노동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만1811원) 이하인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김현정 기자